

막오른 채용시즌, 마감일정 놓치면 낭패

삼성 20일, SK 23일, CJ 19일, 마사회 21일 접수 종료

바이킹 챌린지·RESPECT 등 스펙 안보는 블라인드전형 눈길

국내 주요 대기업과 계열사들이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SK텔레콤 등 일부 계열사의 'SK 바이킹 챌린지 전형'과 CJ그룹의 'RESPECT전형' 등 스펙을 보지 않는 탈 스펙 전형이나 블라인드 전형이 눈길을 끈다.

1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에 따르면, 삼성전자, SK그룹, CJ그룹, 한국마사회 등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의 올해 상반기 인턴/신입사원 선발을 위한 입사지원서 접수가 오는 19~23일 마감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상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가 오는 20일 17시 마감된다. 모집부문은 CE/IM부문(SW개발/회로개발/기구개발/재료개발, SCM/물류 등), DS부문(반도체설계/공정개발/설비/시스템개발/SW개발, 생산관리 등) 3급 신입사원이다. 영어회화 자

격은 OPIc이나 토익스피킹에 한해 적용된다. 단 모집 직무별 필요한 영어 등급이 상이하다.

SK그룹은 올해 상반기 인턴과 신입사원 모집에 나섰다. 지원서는 오는 23일 SK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그룹별로 SK이노베이션, SK네트웍스, SK하이닉스, SKC 등에서 신입사원을 SK텔레콤, SK건설, SK브로드밴드 등에서 인턴사원을 모집 중이다.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후 필기전형(SKCT), 면접전형을 거쳐 신입, 인턴사원으로 최종 합격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SK그룹 필기전형 SKCT는 4월 22일 진행된다.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주식회사(C&C)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는 학벌이 아닌 도전자의 스토리를 평가하는 탈 스펙 채용 전형 'SK 바이킹 챌린지'도 진행된다.

CJ그룹도 오는 19일까지 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모집 부문은 CJ제일제당, CJ푸드빌, CJ E&M, CJ 올리브네트웍스 등 13개 계열사

<주요 대기업의 2018 상반기 공채 일정>

/자료=잡코리아

기업	공고명	마감일
(주)LF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3/12~3/27 18시
(주)지투알	2018년 신입사원 공채	3/12~3/23 11시
삼성SDI(주)	2018년 상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3/12~3/20 17시
한화케미칼(주)	2018년 상반기 신입 채용(Engineer)	3/12~3/30 15시
	2018년 상반기 신입 채용(재경, 해외영업, 인사)	
한화건설	2018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3/12~3/23 15시
삼성SDS(주)	2018년 상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3/12~3/20 17시
삼성전기(주)	2018년 상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3/12~3/20 17시
삼성디스플레이	2018년 상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3/12~3/20 17시
삼성전자(주)	2018년 상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3/12~3/20 17시
애경그룹	2018년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3/9~3/15 18시
팜한농	2018년 상반기 신입공채	3/8~3/21 14시
LG이노텍(주)	2018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3/8~3/21 17시
SK그룹	2018 상반기 인턴/신입사원 모집	3/8~3/23
	2018 SK 바이킹 챌린지	
(주)마이다스아이티	2018 상반기 마이다스아이티 신입사원 열린채용	3/7~3/21 18시
판토스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3/7~3/21 9시
하이트진로(주)	2018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3/7~3/20 18시
CJ그룹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3/7~3/19 18시
한국마사회	2018년도 신입사원 채용	3/7~3/21 14시
현대오일뱅크(주)	2018년 상반기 신입 인턴 사원 공개 채용	3/6~3/19 15시

각 부문 신입사원이다. 부문별 우대사항은 상이하고, 모집기간 내 1개 공고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 테스트, 1

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결과 발표 순으로 채용이 진행된다. CJ그룹은 일반 신입사원 전형과 함께 'RESPECT 전형', '전역

(예정)장교 전형', '인턴사원 모집 전형'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 CJ그룹은 오는 16일까지 전국 대학 등에서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 일정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2018년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총 37명을 뽑을 계획이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21일 14시까지 채용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모집부문은 사무직(일반행정, 재경 등), 영업직(장외행정), 기술직(시설, 전산 등) 신입사원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합격해야하고 연령이나 학력 제한은 없다. 전형절차는 원서접수, 필기시험, 1차 직무 역량면접, NC스기반 심층역량평가, 2차(최종) 임원면접, 신체검사 및 임용 순이다.

이밖에 애경그룹이 15일 18시까지 채용연계형 인턴 선발을 위한 지원서를 접수하는 등 LF, 한화케미칼, 한화건설, LG이노텍, 하이트진로, 현대오일뱅크 등이 이달 하순까지 상반기 인턴이나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대학가 소식 |

서울대 허은영 교수, 한국혁신학회장 선임

서울대학교는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허은영 교수(사진)가 지난달 22일 열린 한국혁신학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회장 임기는 올해 3월부터 2년이다.



한국혁신학회는 2005년 창립 후 현재 3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과학·공학·경제학·정책학 등 학자들이 모여 과학기술과 기업 및 산업의 혁신은 물론 공공혁신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을 주제로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회지로는 등재지인 '한국혁신학회지(Innovation Studies)'를 발간한다.

이화여대-하버드대

韓 현대 리더십 논하다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는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을 초청해 10일~18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2017-2018 이화-하버드 아시아 국제교류 프로그램' 서울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하버드대가 미국과 아시아 상호간 깊은 이해를 가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학술·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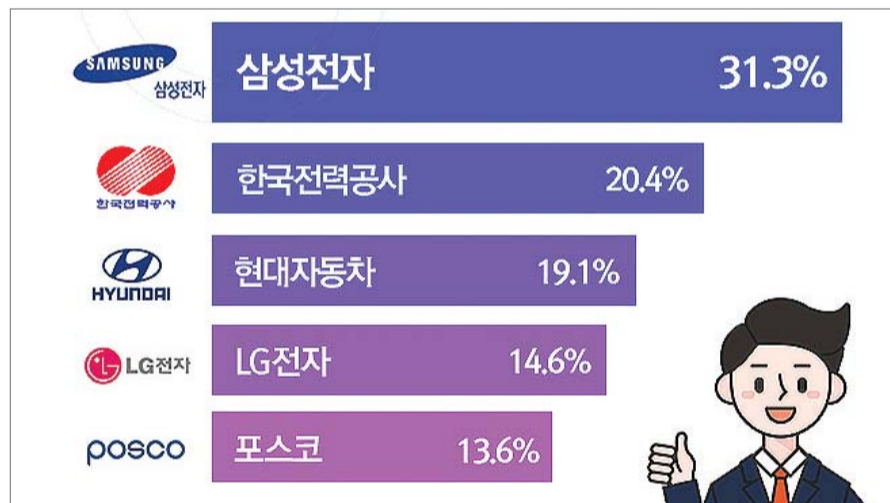
이번 서울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사회의 현대 리더십'을 주제로 하버드대 학생 11명과 이화여대 학생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특강, 기관 견학, 비무장지대 및 공동경비구역 방문 등의 교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 1위 삼성전자... 한전·현대차 뒤이어

작년 최대이익 SK하이닉스 9위에 선호하는 주요 요인, 복지·복리후생

<구직자들이 취업하고 싶은 대기업 톱5>



구직자 1,092명 대상 설문조사.

/자료=사람인

기아자동차(11.3%) ▲SK이노베이션(11.1%) ▲SK하이닉스(10.7%) ▲CJ제일제당(10.3%)

가 10위 안에 들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2위였던 현대차

등차가 올해 3위로 한 계단 내려왔고, 작년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한 SK하이닉스가 10위권에 진입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들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복수 응답)로는 '사내복지 및 복리후생'(62.4%)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높은 연봉'(55.1%), '회사비전'(33.3%), '자기개발 등 커리어 향상 가능'(31%), '대외평판 등 기업 이미지'(23.6%), '업계 기술력 및 전문성 보장'(21.1%), '정년보장 등 안정성'(20%)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구직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학력'(21.2%)을 꼽았다. 이어 '인턴 등 실무경험'(20.8%), '인재상 부합'(17.6%)이 뒤를 이었으며, '출신학교'(9%), '인맥'(8.7%), '외국어능력'(7.3%), '전공'(6.8%) 등이 있었다.

/한용수 기자

日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바로잡는다

교육부 '日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전문가 토론회 등 대응방안 마련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2월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실에서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되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을 보면, '역사 총합(總合)', '지리 총합', '공공(公共)' 과목을 신설해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고, 이들 과목과 일본사 탐구, 지리탐구, 정치경제 등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하도록 했다.

일본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교육과정

편성 기준으로 교육의 내용과 교과서 검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국가 차원의 역사 왜곡 논란이 일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 서종진·남상구·홍성근 박사가 주제발표에 나서고, 현대송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장), 송안범 고려대 교수, 신주백 연세대 교수가 참여해 토론에 나선다.

홍성근 박사는 주제발표문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 연구와 독도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을 통한 독도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수소 잡아두는 '초미세 집' 나왔다

유니스트 백종범 교수팀 수소 저장 우수한 유기구조체 개발

수소는 산소와 반응해 전기를 생산하면 물만 배출하는 등 무공해 에너지원이지만 저장해두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국내 연구진이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을 제안해 주목된다.

유니스트(UNIST·정무영)는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백종범 교수팀이 세 방향으로 성장시킨 '초미세 유기구조체(3D-CON)'를 개발해 수소를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백 교수팀이 개발한 물질은 가볍고 튼튼하면서 수반 등에도 안정적인 유기분자를 이용하고 있고, 수소 저장 성능도 우수해 주목을 받는다.

백 교수는 "오랫동안 다양한 물질이 제안됐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유기 물질



'3D-CON'을 개발한 유니스트 연구진. (왼쪽부터) 자비드 마흐무드 교수, 백종범 교수, 김석진 연구원.

/유니스트

이 유리하며, 특히 이번 물질은 수소 흡착 능력이 최고 수준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기체 저장 물질은 수소자동차와 가스 센서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미래 에너지 소재로 유기구조체를 응용할 전략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우리 기술로 세계 기술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 기자